’2019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3.26	대전MBC 대회의실	6	7	

- ㅇ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신성철 위원장, 이용원 위원, 정대식 위원, 김은주 위원
- ㅇ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3	-	-	8	-	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8	-	-	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 건	9 건	
편성	2019년 봄 개편에서 지역성 반영	지적사항이 많았던 「TV특강」 폐지, 각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는 다큐 에세이 「그 사람」 편성으로 지역성 강화 **<19.3월 조치>**	’19.2월
교양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	홈페이지를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 상시 제공중 **<19.3월 조치>**	’19.2월
교양	생방송 아침 : 출연자의 긴장감 완화	제작시 출연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있는 다양한 조치 시행중 **<19.3월 조치>**	’19.2월
보도	과학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한 보도 필요	규제자유특구-충남 수소&바이오 날개 달까(3/15) **<19.3월 조치>**	’19.2월
보도	4대강 관련 보도, 적절한 시각 제시 필요	세종보 처리방안 주민의견 듣는다(3/12), 금강3개보 처리방안 6월 확정 (3/19) **<19.3월 조치>**	’19.2월
보도	지역 대형사고에 대한 꾸준한 후속 보도 요청	잇단 사고에 충남도에 대책 촉구(3/07), 산재고리 끊을까 (3/1), 특별노동안정보사위원회 설치 (3/29) **<19.3월 조치>**	’19.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 명	전 · 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부위원장	송길헌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울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변 동 사 항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공무원 임용으로 해촉

다. 시청자위원 해촉

○ 해촉 사유 :

대전시 공무원 임용으로 운영내규상 위원자격 유지 불가

○ 해촉 일시 : 2019년 3월 26일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교양 : 아침이 좋다 - 문화나들이** 대전은 문화에서 부족한 부분, 어떻게 방송에서 향상시킬 수 있나 ? 방송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문화 나들이 코너에서, 원로작가와 시민작가, 대전 그리다, 꿈꾸다 편은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소재가 많이 방영되었으면 좋겠다. **(권부남 위원)**	최대한 다양한 문화 현장과 예술인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참고해 지역의 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문화예술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양	**교양 :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짧으면서도 재밌게 보았다. 보슈 독자의 목소리, 편집인들의 목소리보다 독자들의 의견이 있었으면 싶다. 5월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조명하면 좋겠다. **(권부남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 보슈, 청춘 나들목 등은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 청소년 문제를 강화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며,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재가 좋을 듯 (청소년도 시민이다.) **(김종남 위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층위의 주인공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신 의견 참고해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라나는 현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양	**교양 : 건강플러스** 미세먼지와 건강의 문제는 가장 큰 관심. 건강 플러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을 위한 방법을 방송했으면 한다. **(함진호 위원)** 건강 플러스에서 각종 질병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스토리가 있었으면 한다. 최근 동향이나 시의에 맞는 알츠하이머, 요실금 등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라 생각. **(양선희 위원)**	프로그램의 특성 상 병원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가 100%,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시의성 있는 아이템을 더 다룰 수 있도록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 3/10방송된 「정치하는 엄마를 만나다」편은 생동감 있는 연출이 좋았다. 세종에 있는 엄마를 만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아이는 소외된 느낌이 아쉬었다. 대전의 저출산 문제 다루면서, 출산문제 토론 시, 패널 한 쪽으로 의견과 발언이 집중되는 현상은 배분이 필요하다는 생각. 한 패널의 이야기중 다른 패널의 이야기가 작게 들리는 오디오상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듯. 분할 화면은 굉장히 좋았다. 패널의 표정과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이 좋은 느낌을 주었다. 프로그램 중간에 뉴스 자료를 사용했는데, 하나의 꼭지만을 사용해서 뉴스의 느낌이 너무 강했다. **(권부남 위원)** 인터뷰 중 아이의 행방은 프로그램 진행중 계속 궁금했다. 현장토크는 시청자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많아 좋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김종남 위원)** 한유총 관련 현장인터뷰는 좋았다. 다른 아이템에 많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미세먼지, 전문가 등장시 용어가 일반 시청자에게는 어려웠다. 어려운 용어를 진행자가 짚어주는 부분이 좋았다. **(양선희 위원)** 전문가와 정치인이 등장.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결론이 너무 상식적인 결말. 전반부는 도움이 되었지만, 해법으로 보다 전문적인 방식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며, 시간이나 구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가이슈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 야당과 대화는 여야4당의 합의가 이루어지기전 녹	진행상에 기술적인 부분(오디오)에 대한 리허설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노정렬이 간다(현장토크)는 현재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과 포맷 등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중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화하고, 합의 후 방송이라서 내용과 불일치 하여 아쉬움. 녹화시점보다 방송시의 이슈 문제를 고민해야할 듯, 대전 시민의 주민 참여를 위해 여야정치인 참여 필요, 특히 세종시 문제의 경우 상생의 문제를 찾자는 제안은 의미있는 제안. **(송길헌 위원)**				
보도	**보도 : 뉴스 포멧** 개편이후 시간대를 앞당긴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데,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기위해서는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시청자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소재에 따라 친절한 설명, 내용 요약(썸머리), 핵심을 파헤치는 뉴스 등 뉴스를 통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 **(양홍모 위원)**	와이드 뉴스 개편에 따라 '바로 간다' 코너를 비롯한 다양한 포맷의 뉴스를 기획해 보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드 뉴스 자체가 안정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같이 연계해서 뉴스 포맷의 혁신을 기획중입니다.	○		
보도	**보도 : LNG 화력발전소 관련** LNG 화력발전소, 카이스트 원자력 학과 교수의 인터뷰는 미세먼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LNG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분으로 탈원전과 관련해서 LNG에 대한 비판 기조는 오히려 환경공학 전공 등이 적절하다는 생각. **(양홍모 위원)** LNG 발전 관련,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 필요, 노정렬의 시시각각에서 다루면 좋을 듯 **(양선희 위원)**	환경 문제 보도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인터뷰이를 선정하겠습니다. 환경 이슈에 대한 부분은 시사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충분히 의제화할 생각입니다.	○		
보도	**보도 : 미세먼지 관련** 최근 2달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MBC 뉴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았다.	대전MBC 뉴스는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보도를 다양한 시각과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측정망 미비 등 문제와 대안으로 제시했던 일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뉴스-농촌의 미세먼지 심각 : 농촌에서 태우는 문제, 심각하기는 하지만, 논산시 환경과장의 이야기가 정부의 시책을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정리. 정부의 대책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여,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으로 그치고 있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론과 방향을 유도하고, 과학자들의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미세먼지가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이 여론의 반향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대전의 미세먼지 뉴스에서, 카이스트 교수가 출연해서, 미세먼지 유발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감 상승. LNG 발전소의 입지 문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지만,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여론 조성에 방송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 **(함진호 위원)**	사항들은 지역의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하겠습니다.			
보도	**보도 : 다양한 뉴스에 대한 의견** 주말 뉴스데스크의 경우, 주말 표정이 첫 뉴스로 등장하는데, 반복적인 스케치 뉴스는 뉴스의 연성화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 프로야구 개막 관련, 한화 이글스 연속 보도에서 클로징 부분에 기자가 계속 똑같은 의상으로 등장하였다. 차라리 하루쯤은 기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도 시청자를 위한 다른 배려라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심각 : 농촌의 미세먼지 심각함을	토/일요일 뉴스는 당일 뉴스의 밸류를 따져 연성 및 경성 뉴스를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염 발생 보도에서 물 끓이는 장면은 편성국 영상부에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종류 후 멘트 없는 화면이 나가는 문제는 서울 뉴스에서 종료 예고 시간과 실제 종료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전국팀과 긴밀히 협의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표현하기위한 장치로 마스크 착용했는데, 위치가 다소 불안하다. 한쪽 귀에 거는 정도면 어떨까 한다. 에듀파인 도입관련 뉴스에서 대전 90.5 - 충남 100으로 개학을 연기한 지역과 에듀파인을 도입한 곳의 연관 수치가 일반적인 개념과 맞지 않아 의아한 느낌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연관을 뒤집는 수치를 보여줄 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 필요할듯하다. a형 간염 만연 관련뉴스에서 물을 끓여야 한다는 멘트시 등장한 물 끓는 영상은 너무 기계적 느낌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련된 처리 요망.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민단체 출신 중용 보도는 지역의 아픈 곳을 과감히 보도하는 좋은 보도로 생각되나, 정작 당사자의 인터뷰가 없어 뒷심이 부족한 느낌. 3/11 뉴스데스크 종료후 10초이상 앵커의 멘트 없는 화면만을 송출하였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또한 3/11 스쿨존, 등교길 위험뉴스에서 제공된 수치 가운데, 3월은 전달대비 50%이상 급증이라는 부분은 보다 사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2월은 방학 중이라서 등교의 가능성이 적은데, 이를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3월 급증이라는 부분은 부적절한 비교. 3/13 지역현안과 관련 뉴스에서, 충청소외론의 관점을 보도하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 라는 제목은 너무 원색적으로 느껴진다. 보다 품위 있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	해 운행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송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화학연구소, 메르스, 한약연구원, 31운동 100주년 등의 기획보도와 봉산초 급식 관련 고발보도에서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 수사 대응까지 이슈를 따라가는 연이은 뉴스는 좋았다. 봄이 다가오면서 지역축제 보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도 좋은 뉴스의 소재가 되리라 생각된다. 주꾸미 축제 같은 경우 아이들과 함께하는 낚시는 좋아 보였다. **(양선희 위원)**				